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공사 '순조'

생태환경 복원·치수 기능 강화
내년 11월 완공 목표
윤병태 시장, 장마철 앞 방문
호우 대응 점검·주민 의견 청취



윤병태 나주시장이 지난 7일 중앙동 동점문 인근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 현장을 찾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내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사업이 이달 현재 공정을 20%를 보이며 순항하고 있다.

나주시는 윤병태 나주시장이 최근 중앙동 동점문 인근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나주천 생태물길 조성 사업은 민선 8기 나주시의 역점 현안사업 중 하나다. 원도심 시가지를 관통하는 나주천의 수질과 생태 환경을 복원해 나주 대표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고 홍수 대비 치수 기능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주시 경현동에서 삼도동 영산강 합류부 일원까지 3.07km 구간 하천 정비와, 3.04km 구간 차질판로 정비, 교량 13개소 재가설, 청동배수펌프장·유수지 증설 등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비 936억원을 확보해 지난 2022년 12월 착공했다. 이달 현재 다목적생태광장(주차장), 굴곡수로 조성을 마무리했다.

올해 상반기 청동배수펌프장과 유수지를 증설하

고 학교·동점문 구간 하천 정비 공사를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남내고 등 5개 교량을 재가설한다.

나주시는 생태물길공원에 한수 생물서식처와 어류산란처 등을 조성해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꾸리고 다목적 생태주차장을 구성해 시민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윤 시장은 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또 계획 공사 기간 준공 여부, 하천 수심 유지 계획, 기존 석축·금성교 활용 방안, 여울보 주변 쉼터 조성, 집중호우 자연재난

대응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어 세양아파트 앞 교량 시·종점부 확장 여부, 임시진입로 공영주차장 활용, 교량 폭 확보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단조로움을 탈피한 갈지자형(之) 산책로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원도심 곳곳의 매력을 만끽함으로써 결국 원도심이 다시 활력을 띌 수 있도록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태물길공원 조성 관련 지역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원(왼쪽) 강진군수 등이 보은산 V랜드공원에 마련된 황토 맨발 길을 걸어보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 보은산 맨발길 걸으며 심신 치유

V랜드공원서 개장식...200m 황토길 조성·세족장 설치

강진의 명산 보은산 V랜드공원에 황토 맨발길이 생겼다.

강진군은 최근 V랜드공원에서 강진원 강진군수, '맨발로 보은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등 30여명과 '황토 맨발길 개장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맨발 길은 지난 3월 착공해 석 달간 공사를 진행했다. 폭 1.8m, 길이 200m로 규모로 맨발길을 조성했다. 길 주변에 나무를 심고, 마사토·황토 다짐 작업, 경계석 설치 등을 벌였다. 도보객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평탄화 작업과 노면 정비도 했다. 강진군은 걷기 모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마사토와 황토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 길을 조성했다. 황토길 끝에 세족장과 신발장을 설치했다.

강진군은 앞으로 맨발 길 400m를 추가로 만들어 V랜드공원 전체를 맨발로 쾌적하게 거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V랜드공원 맨발 길 인근에는 휴식과 치유를

위한 '보은산 힐링센터'가 있다.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는 V랜드에서 수국 축제가 열린다. 이곳에서는 집라인과 미끄럼틀 등 놀이시설 6곳과 휴게시설 1곳, 쉼터 6곳 등을 즐길 수 있다.

보은산 공원에서 고성사까지 1km 구간에는 꽃무릇 15만그루와 양귀비, 백일홍, 황금 달맞이 등 다양한 꽃이 피어 있다. 앞으로 맨드라미, 버베나 등을 심어 공원 관광객을 맞을 계획이다.

V랜드공원 외에도 강진지역에는 호수공원, 서문안 교차로 앞 등지에 맨발 건강길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V랜드공원은 생활권 가까이에서 보은산의 정기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며 "자연 그대로에 최소한의 편의를 더해 주민들께서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휴식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해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 2년만에 매출 200억

안전 먹거리 입소문...55만명 이용
장성군, 14~18일 2주년 행사

광주 첨단지구에 문을 연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이 개장 2년 만에 매출 200억원을 달성했다.

장성군은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광주시 북구 오룡동) 개장 2주년 행사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은 지난 2022년 6월 광주 첨단지구에 문을 연 뒤 2년간 200억원 넘는 매출액을 기록했다.

지역 농가와 신선한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덕분에 농업인은 판매 수수료 부담을 덜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누적 이용객은 55만명을 넘겼다. 첨단직매장은 이달 현재 1751개 농가와 출하 약정을 맺어 3961개 품목을 소비자에 선보이고 있다.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첨단직매장은 약정을 맺은 농가들과 협업해 판매 농산물의 신선도를 높였다. 정기적으로 농약 안전성 검사를 벌이고 판매 기한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점포 2층에 '농가 레스토랑'을 열어 도시민 등 고객들의 먹거리, 즐길 거리 폭을 넓힌다. 이곳에서는 장성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 음식을 선보인다.

첨단직매장은 장성지역 농가 외에도 광주 광산구 농가 49곳과 출하 약정을 맺어 도시민과 상생 을 도모했다. 광산구 농가들은 첨단직매장에 출하



김한중(오른쪽) 장성군수가 광주시 북구 오룡동에 있는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을 찾아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장성군 제공>

하면서 6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이 밖에도 전남도 6차 산업의 하나인 '안테나숍'을 점포 안에 운영하며 전남 12개 시군과 상생 을 이어가고 있다. 6차 산업은 단순한 농산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 유통, 판매를 겸하는 산업을 말한다.

장성군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한편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 개장 2주년 행사

에서는 '포기김치 담그기' '토마토·복숭아·수박 시식' '전남 6차산업 인증 가공품 시식·증정'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이 200억원 매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농업인과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군 관계자 등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 특산물 '배주스' 스웨덴 간다

가보팜스, 3만8400개 선적식

나주지역 특산품인 배를 가공해 만든 배주스가 유럽 수출길에 올랐다.

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에 따르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공동기술개발사업에 공동연구로 참여한 (주)가보팜스(대표 김희성)가 3만8400개(배 1개 기준 약 9t)의 나주 배주스를 스웨덴에 수출하는 선적식을 최근 거졌다.

나주에 소재한 가보팜스는 과채주스, 벌꿀, 액상차 등 가공식품 전문 생산기업이다.

이번에 수출한 배주스는 나주 특산물 배를 활용

하고 가보팜스의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 맛과 품질이 우수하다. 한국의 전통 과일인 배를 현대적 기술로 재해석한 제품이다.

김희성 가보팜스 대표는 "이번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숙취원료를 활용한 배주스 개발 이후 유럽, 미국, 호주 등에 더욱 활발히 수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성은 나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스웨덴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으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식품기술과 전통식품의 가치를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강진군-강진고 '자율형 공립고 2.0' 협력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우수 인재 양성...매년 2억원 지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강진군이 강진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과 협력을 바탕으로 특색있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면 일반고에 비해 교육과정이나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장공모제 시행, 교사 정원의 100%까지 초빙, 교사 추가배정 허용 등이 가능하다. 또 자율형 공립고 지정기간(5년) 매년 2억원(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담양 '담주 다미담예술구' 운영자 찾아요

담양의 복합문화거점 공간인 '담주 다미담예술구'가 공간 운영자를 오는 27~28일 모집한다.

담주다미담예술구는 예주구간(쓰담길)과 미주구간(담양시장)으로 이뤄진 복합문화거점 공간이다. 문화예술 활동가와 상인들을 유치해 담양의 대표 관광지와 원도심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목

표다. 담양군은 이번에 예주구간(쓰담길) 일반 임대 공간 운영자를 모집한다.

담주 다미담예술구에는 공예, 독립서점, 제과·제빵, 게스트하우스 숙박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입주자들이 창작과 상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이번에 추가 입주자를 모집해 담주 예술구의 활성화 를 꾀했다.

모집 대상은 4개 실이다. 문화·예술 등을 주제로 한 공간 운영자와 청년 창업자, 상업 공간 운영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 누리집(damyang.go.kr)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담양군 경제교통과(061-380-3125)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 사회적경제기업 자립 경영 돕습니다

27일까지 참여기업 모집...시설·장비 분야 홍보·판촉비 등 지원

화순군이 '2024년 하반기 사회적경제기업 재정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진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도록 재정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시설·장비 지원 사업 분야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예비·인중 사회적기업, 예비·행안부형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해당한다. 단 올해 상반기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이나 해당 사업의 최대한도 기간까지 지원받은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대상 기업은 신규 사업 개발을 위해 브랜드 홍보·판촉 비용 5000만~1억원을 지원받는다. 시설·장비 사업 부문에서는 신규 시설·장비 구매, 노후 시설·장비 교체 등에 최대 2000만원까지 받는다.

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화순군 누리집이나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공지 사항에서 제출서류를 준비해 화순군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재정지원 공모사업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